

진안고원 농촌유학 페스티벌

산악초타운 잔디광장서 농촌유학 활성화 위해 마을체험 등 진행

진안군 산악초타운 잔디광장에서 5일부터 6일까지 '진안고원 농촌유학 페스티벌'이 열린다. 진안군과 진안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페스티벌은 군과 지역 교육청이 상생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아이도 부모도 우리 모두 초록 에너지 충전'을 주제로 진안군 천혜의 자연과 함께 마을체험도 즐기고 진안군 농촌유학 홍보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 학부모와 학생, 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해 농촌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막식에서는 농촌유학 협력학교인 조림초 락밴드와 농촌유학 예비학교인 부귀초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비전선언문 낭독식에서는 진안군과 진안교육지원청은 '농촌의 생태가치를 공유하고 농촌유학을 선도하며, 농촌유학이 교육귀촌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선언했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농촌유학 예비학부모들은 농촌유학 강연과 좌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아이들은



“진안고원 농촌유학 페스티벌”이 진안군 산악초타운 잔디광장에서 5일부터 6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린이 생태학교에 참여해 진안군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관내 단체인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진안군 일자리센터,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도 함께 참가해 부스 홍보 및 체험을 지원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안군에서 살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6일에는 농촌유학 협력학교 및 예비협력학교 방문, 마을과 연계한 체

험이 열려 진안군 농촌유학과 귀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춘성 군수는 “천혜의 자연속에서 마을, 학교, 진안 사람들이 함께하는 진안고원 농촌 유학에 많은 관심 바란다”며 “농촌유학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31대 부군수로 취임한 송주섭 부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사진은 현장행정 모습)

송주섭 장수 부군수 취임 100일

소통·현장행정으로 군정 발전 견인

장수군 31대 부군수로 취임한 송주섭 부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송주섭 부군수는 지난 7월 장수군 부군수로 취임한 후 발 빠른 현안과과와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연일 소통·현장행정을 펼치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실현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송 부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긴 장마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군민 안전을 위해 힘썼으며, 장수군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매일 축제장 곳곳을 방문하며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전북도 등 정부부처를 직접

찾아가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군정 발전에 힘을 보탤다. 특히 송 부군수는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대외협력과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통한 업무추진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군정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주섭 부군수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장수군은 내일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장수군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군민을 위한 행정, 나아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다짐될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생활 여건 개선 호평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우수지구 선정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평가에서 우수지구로 선정돼 기관 표창(지방시대위원회)과 함께 2025년도 신규 지구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됐다. 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016년과 2017년 취약지역 생활 여

건 개조사업에 선정, 추진이 완료된 95개 지구를 평가한 결과로,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은 2017년도에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사업성과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와 지자체 노력, 사후관리 등에서 두루 호평을 받았다. 특히 마을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구성된 담장을 비롯해 비탈면 재해위험 축대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집

수리 등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시행했던 미술·노래·춤 등의 문화 활동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마을 단합 도모를 위한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등은 두문마을 주민의 활력 및 공동체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무주군민 공감대 확산·공직자 역량 강화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무주군 공직자 설명회'가 5일 무주군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2024. 1. 18.)을 앞두고 무주군민의 공감대 확산과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윤정훈 도의원,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단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 이지형 자치제도 과장은 '전북특별법 전무개정안'과 함께 중간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명칭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되는 자치법규와 행정 사항(업무시스템·웹사이트·포지팅·공인·공부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최복미술관 다목적영상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무주군 공직자 설명회'에 앞서 전라북도와 무주군 소관 업무 부서장 간 담화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특례 발굴과 자치법규를 비롯한 홈페이지, 관광·도로·하천 안내표지판 및 게시물, 공간정보 시스템 및 인강대장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청년정책위원회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해 진안군의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향후 5년간(24년~28년) 진안군의 청년정책을 새롭게 구상하고 제시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목표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실태와 현재의 청년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난 7월 25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우리군 실정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네 가지 분야별 주요정책은 △일자리(취업/창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과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 △주거/

복지/교육: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 교육 환경 조성과 지원 강화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을 통한 창의성과 행복감 증진 △참여관리: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 제공이다. 진안군은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하며, 청년들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년들을 진안군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 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최종보고로 우리군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정책 수립을 했다”며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 권익증진과 자립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장수군,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 농가 '호응'

장수군이 올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이 농촌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에 크게 도움을 주며 농가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장수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을 모집해 농가에 지원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이 빈번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장수군에서는 이미 지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탈률이 전혀 없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재신청자가 80% 이상 돼 작업 숙련도도 높아 농가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유기농업자재 이용 공 품종 선별 현장실증

진안군은 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해 농약사용량을 줄이면서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공 품종을 선별하기 위한 2년차 현장실증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실증은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와 협업체 추진하는 것으로 공 유기농업자재 처리별 생육 특성과 병해충 방제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과학영농실증시험포장(800㎡)에 국내 육성 공 6 품종(강일, 대원, 대찬, 선풍, 진품, 태풍)을 재배해 식물추출물, 석회보르도액, 복합미생물제 등을 2주 간격으로 처리했다. 군은 공 수확기 이후 품종별 생육특성과 세균성 불미류병, 탄저병, 노린재, 공잎벌레 등 병해충 발생량 조사결과를 분석해 유기농업자재 처리에 따른 병해충 방제효과, 수확량 증대 등 친환경 공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톨라리개미노린재는 주로 공 꼬투리를 흡즙해 수확량감소, 상품성 저하 등 재배 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식물추출물(제충국+고추씨) 처리와 함께 페로몬트랩을 설치하여 방제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